

출판계에도 在宅근무제 시험적 실시

백산서당 등 일부 출판사서...아직은 편집부에 국한

재택근무제가 출판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존의 재택근무제는 임시 계약직에 한해서 이루어졌을 뿐, 정식직원에 대해 실시되지는 않던 근무체제였으나, 최근에는 정식직원에게도 재택근무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출판사가 생겨나고 있어 보편화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출판사 운영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를 실시하고 있는 출판사로는 백산서당(대표 이범)이 대표적이다. 또한 김영사(대표 박은주)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계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재택근무제’란 말 그대로 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출판사의 직원들은 단순작업과 필자를 만나서 청탁하고 관리하는 일 외에도 출판사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모든 업무를 집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근무체제는 출판사라는 업무특성상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직원들 모두에게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산서당, 1월부터 재택근무 시험적 실시

백산서당의 경우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올해 초부터지만, 이를 검토한 것은 벌써 2년 전이라고 한다. 직원 10명 중 편집부 직원 5명에 한해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백산서당은 편집부의 일을 대폭 확장시켜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편집부를 일종의 개발부와 같은 성격을 띠는 부서로 승격시켜 모든 업무를 집에서 직원이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편집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몇가지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컴퓨터통신망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정도의 컴퓨터교육이다. 백산서당의 재택근무자들은 모두 각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교정·교열을 컴퓨터를 통해 하고 있으며, 교정·교열이 끝난 원고는 컴퓨터통신망 등을 이용해 직접 편집에 들어간다고 한다.

노동시간을 따져볼 때 재택근무는 기존의 8시간 근무보다 더 많은 노동량을 요한다. 백산서당 편집부 강성혁씨는 “출퇴근 근무를 했을 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책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재택근무제’란 말 그대로

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출판사는

업무특성상 이 제도를 더

능률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현재 백산서당이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지만

창의력 개발과 효율적인

시간관리로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몸은 비록 편해졌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중압감이 더 커졌다”며 재택근무의 어려움을 피력한다. 또한 과거 기획회의에서 결정된 일,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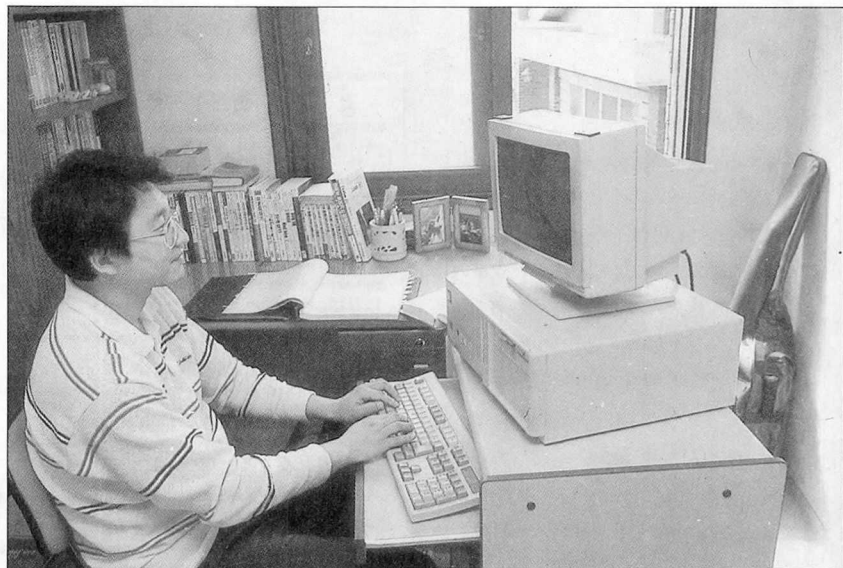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생기는 장점을 살펴보면, 직원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업무를 단절없이 수행함으로써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자료를 수집하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획을 잡기도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각자의 의자와 책상이 사무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태를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탁자 위주로 바꿀 경우 사무실의 분위기는 물론 공간 활용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백산서당에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려 한다는 이범씨의 말을 들은 출판관계자들은 이범씨에게 “낭만적인 사고가 아니냐”며 그 실현 가능성을 무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범씨의 생각은 사회의 변화에 출판사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직원 창의력 높인데 높은 효과 보여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출판사도 편집부의 기능이 강화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많은 정보를 간추려서 전달할 수 있는 편집부 직원의 능력이 필요하다. 즉 충분한 휴식과 공부를 겸하게 해서 직원의 창의력을



백산서당의 강성혁씨가 집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높이는 데 재택근무가 일조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직원의 창의력은 출판 기획업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담당직원은 방송에서 말하는 PD의 기능—원고 기획부터 시작되는 출판사의 모든 업무—을 수행해야 한다. 직원로서는 당장 이러한 현실이 부담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기존의 타율적인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생활태도를 능동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의 부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우려의 대상이다. 즉 기획, 자료정리, 대인관계 등의 업무를 잘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특정부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 등 각 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 일의 진척도가 현저하게 개인편차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주의 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출판이라는 일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를 감당하다보면 자칫 다른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소홀해지기 쉽다.

하지만 백산서당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별, 월별 회의를 통해 의사소통의 교량역할을 해주고 있다. 매달 기획위원, 영업부, 편집부 등 전체 직원이 모여서 실시하는 기획회의와, 매주 월요일 기획위원을 제외한 직원들만의 전체회의, 그리고 편집부만 모이는 편집회의가 실시되는데 모든 의견은 이러한 회의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회의는 또한 기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데 출판사 직원들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더 신중해진다

고 한다.

편집부가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 등 관리파트의 직원들은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즉 출판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출판사 영업부 직원들이 배본이나 수금업무가 아닌 본연의 업무인 광고나 기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등 제도적 보완책 뒤따라야

재택근무제는 확실히 대상직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출판사 경영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걱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들어 소나무출판사 한봉국씨는 이에 대해 “현재 출판업무가 많은 분화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출판사는 단지 기획사의 역할만 할 뿐 그 외의 모든 업무는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재택근무제는 정식직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좋은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백산서당은 오는 6월말까지 재택근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기간동안 문제점을 파악, 개선해갈 것이라고 한다. 백산서당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는 재택근무에 따른 임금체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임금체계는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즉 임금체계를 성과급으로 바꿔 직원들의 창의력을 고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성수 기자